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인도, 2006 GDP 성장률 9.2% 예상
- 미국, 엔화 약세 용인 전망

경영 노트

- 알파걸(a girl) 신드롬

사회 트렌드

- 복권 구입, OECD 국가 중 꼴찌
- 내 직장이 '평생직장', 19%

저널 브리프

- 혼다 자동차 엔진의 大역습

洗心錄

- 올바른 '밈'(meme: 모방 유전자)

□ 인도, 2006년 GDP 성장률 9.2% 예상

- 인도의 2006년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GDP 성장률이 18년 만에 최고치인 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부문의 성장률이 2005년의 약 9%에서 11%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인도 국민의 60%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 2005년 6%에서 2.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년여 간의 경제개혁의 효과로 장기 경제성장률도 8%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전문 노동인력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여 인도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국, 엔화 약세 용인 전망

- 미국은 EU 등 세계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용인하는 반면 위안화에 대해서는 추가 절상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엔화 가치는 시장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엔저 현상은 문제될 것이 없음”(2월 6일, 미의회 청문회,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 최근 엔화는 G7회담에서 엔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강세로 전환되었으나, 폴슨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다시 반전됨
 - 다만 위안화에 대해서는 추가 절상 압력을 가할 것이며, 중국 외환시장의 개혁 과제로 계속 이를 요구할 것임을 언급함

- 독일 에센에서 열리는 G7재무장관회담(2월 9~10일)에서 엔화 약세 문제가 의제로 오르겠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성명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엔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엔화 약세 지속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물류 및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알파걸(a girl) 신드롬*

- (개요) 최근 기업에서는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인재로서 알파걸들이 주목받고 있음
 - 알파걸은 공부, 리더십, 운동 등 모든 면에서 남성을 능가하고, 능가하려는 열정을 가진 야심만만한 여성들을 말함
 - 미국 하버드大 덴 킨들런 교수는 최근 불어 닥친 여풍의 주역으로 결혼보다 성공을 추구하는 알파걸을 소개함
 - 감성시대의 도래와 남녀차별을 경험한 엄마들의 전폭적인 지원, 성과주의 지향의 기업문화 변화가 알파걸의 사회 진출을 촉진시킴

- (현황) 한국의 경우, 최근 법조계 등 전문직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의 영업직이나 철강업계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까지 진출이 활발함
 - 강력계 여성 형사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철강업계의 여성 공장장 등,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알파걸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분야별 여성 참여 현황 >

분야	비율(%)
교육전문직(장학사(관)/연구사(관))	24.4(2006년)
지자체위원회 위원(당연직)	5.6
17대 국회위원	4.1(광역12.1 기초 15.1)
시도부별 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18.9
5급 이상 공무원	5.9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비	63.4
전국 대학 여교수	16.2

자료: 여성가족 통계연보(2005)

- (시사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능력있는 알파걸을 유치·활용하기 위한 인재관리시스템 및 기업문화 재구축이 요구됨
 - 동등한 임금과 기회제공,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 또한, 알파걸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재관리시스템 정비로 기업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추구해야함

*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2007.02.03~6)에 게재된 “알파걸 기획특집”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복권 구입 OECD 국가 중 꼴찌

- 우리나라의 1인당 복권 구입액은 연간 58달러로 1위인 스페인의 약 1/5 수준임
 - 스페인은 2005년 국민 1명당 연간 311달러의 복권을 구입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함
 - 이탈리아(241달러), 캐나다(177달러), 프랑스(173달러), 미국(170달러), 독일(148달러) 등의 순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98달러), 일본(73달러)이 우리나라보다 높고 중국은 6달러로 가장 적었음
- 유럽의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복권 구입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권 매출액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임
 - 200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권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페인(1.2%), 이탈리아(0.8%), 캐나다(0.5%)순이며, 우리나라는 0.36%로 낮음
 - 하지만 국내 갬블(gamble) 산업 중에서 경마와 경륜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로또와 토토 등의 복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내 직장이 '평생직장' 19%

- 현재의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19%에 그치고 있는 반면, 현재 하는 일이 '평생직업'이라는 생각은 34%로 많음
 - 스카우트와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니다'는 의견이 81%로, '평생직장'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퇴직 후에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겠다'는 '평생직업'에 대한 의견은 34%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겠다'는 의견(23%) 보다 많았음
- 직장인의 36%는 60대까지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여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근로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60대 중반'은 21%, '60대 후반'은 15%이며, '50대 후반'은 30%로 가장 많음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5세 이상' 취업자가 2005년 말에 비해 4.5%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6.8%에서 17.4%로 0.6%포인트 증가함

□ **혼다 자동차 엔진의 大역습 ***

- (개요) 최근 혼다는 미국의 배기가스 감소를 포함한 연비규제에 대응하는 신차종 출시를 발표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전체 매출액 중 90%가 SUV 등에 의존하는 미국의 빅3사나, 디젤차 부문을 선점한 유럽업체들은 新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혼다는 린녹스 촉매기술을 이용해 가솔린 수준만큼이나 깨끗한 차세대 디젤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경쟁력)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열정이 가솔린 엔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디젤엔진의 개발을 통해 시장주도를 추진함
 - 1972년, 혼다는 기존 배기가스량을 1/10로 규제한 미국 법에 부합하는 가솔린엔진(CVCC)을 개발해내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한 경험이 있음
 - 가솔린 엔진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디젤엔진 부분에서도 발휘되어 더욱 강화된 미국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엔진개발에 성공한 것임

- (전략) 차종별 차별화된 시장공략으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대응하는 한편, 新시장 개척 전략으로 디젤차 부문에 주력함
 - 중대형 하이브리드 카 시장에서 도요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혼다는 디젤차로 승부하고, 소형차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카로 대응하기로 함
 - 해외시장의 경우, 매출확대를 위해 신차판매의 절반이 디젤차인 유럽과 미국을 새로운 목표시장으로 선정함

- (시사점)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규제의 벽을 넘는 길은 환경기술의 역량강화에 있다는 점을 혼다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음
 - 환경기술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기업들은 혼다의 경우처럼 자체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 외부적으로는 개방형 R&D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문 환경연구 단체나 관련전공 대학 연구소와의 제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이코노미스트』(2007.1.16)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올바른 ‘밈’(meme: 모방 유전자)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백 마리의 개가 짖는다.**” 중국 동한시대의 왕부(85~162)가 지은 철학서인 잠부론(潛夫論)에서 한 말로 한 사람이 유언비어를 흘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한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무심코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조 또는 모방에 대해 옥스포드大 동물학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의 요소"라는 의미로 밈(meme)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밈은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미메메’(mimeme)를 기초로 생물학적인 유전자인 ‘진’(gene)에 대비하여 만들어낸 비유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모방 유전자’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또한 ‘진’(gene)과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로 만들기 위해 ‘밈’이라고 발음한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되듯이 노래, 의상, 아이디어, 행동, 스타일 등의 밈들도 타인에게 모방되어 전파된다. 최근 TV 개그프로그램 코너인 ‘마빡이’의 변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밈에 의한 복제는 단시간 내에 거의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순식간에 사회의 한 곳에서 시작된 소용돌이가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현상이 네티즌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맨 처음 만들어져 모방되어지는 소용돌이(‘밈’)가 올바른 가치가 있어야 한다. 바른 견해와 가치관은 만행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기업,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낼지라도 그 전제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반대로 전제가 올바르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결과는 계속 모방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

“**한 명의 현모는 백 명의 교사에 필적한다.**” 독일 교육자 헤르바르트(1776~1841)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올바른 ‘밈’을 지닌 현모이어야 한다.

“流言은 知者에게서 멈춘다”

· 순자: 중국 전국 시대 사상가